

트와이스, 일본 데뷔 성공적 출발 신호탄

베스트앨범 '트와이스' 일본 아이튠스 앨범차트 1위 차지... 아시아 차트도 장악

대세그룹 '트와이스'가 일본 데뷔의 성공적인 신호탄을 쏘았다. 28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날 0시 선보인 트와이스의 일본 데뷔 베스트앨범 '#트와이스(TWICE)'는 공개와 함께 일본 아이튠스 앨범차트 1위를 차지했다.

일본 라인뮤직 차트에서도 'IT', '우아하게', '치어업', '낙낙', '시그널' 일본어 버전이 1위부터 5위까지 출세우기를 기록했다. 이번 앨범에는 트와이스의 대표 히트곡들의 일본어 및 한국어 버전 등 총 10트랙이 수록됐다.

이와 함께 아시아 차트도 장악했다. 일본을 비롯해 홍콩, 인도네시아, 마카오, 말레이시아, 페루, 싱가포르, 타이완, 태국 등 9개국 아이튠스 앨범 차트에서도 정상에 올라 K팝 신동 대표 걸그룹의 위상을 증명했다.

일본 데뷔의 성공적인 출발을 알린 트와이스는 30일에는 일본 대표 음악프로그램인 TV아사히 뮤직스테이션(엠스테)에 출연한다.

일본에서 데뷔앨범을 발표하지 사흘만에 '엠스테'에 입성하는 건 파격적인 행보로 통한다. 1986년 10월부터 TV 아사히를 통해 방송된 '엠스테'는 3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에서 가장 인기있는 음악방송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JYP는 "일본을 대표하는 가수 및 해외 유명 팝스타들을 게스트로 초대하는 이 프로그램에 신인 아티스트가 출연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더구나 트와이스는 현지 출신도 아닌 신인으로서 데뷔 사흘만



28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날 0시 선보인 트와이스의 일본 데뷔 베스트앨범 '#트와이스(TWICE)'는 공개와 함께 일본 아이튠스 앨범차트 1위를 차지했다.

에 '엠스테'의 관문을 뚫었다는 점이 더욱 이채롭다"고 자랑했다.

트와이스는 한국 여성 아티스트로서는 2015년 12월 보아, K팝 걸그룹 중에서는 2012년 6월 소녀시대 이후 처음으로 '엠스테'의 초대를 받았다.

트와이스는 '엠스테'에서 'IT'의 일본어 버전 무대는 물론 토크 등을 선보였다. 앞서 트와이스는 일본 데뷔를 앞두고 일

찌감치 현지 미디어와 팬들의 주목을 받아 왔다. 특히 일본 NTV 유명 아침 정보 프로그램 'ZIP!'의 현지 여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인지도 조사결과 정식 데뷔 전에도 80%의 인지도를 나타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같은 인기를 발판으로 트와이스는 최근 일본 도쿄 시부야를 상징하는 대형 쇼핑몰 시부야109의 '109 서머 세일' 모델로 선정되기도 했다.

트와이스는 오는 7월2일 데뷔 쇼케이스로서는 이례적으로 1만명 규모의 아레나 공연장인 도쿄 체육관에서 쇼케이스를 연다. 성원에 힘입어 당초 1회였던 쇼케이스를 1회 더 추가했다.

JYP 관계자는 "티켓 응모 인원이 쇄도해 2일 오후 3시와 6시, 2차례 쇼케이스를 열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평창 조직위, 한국수자원공사와 업무협약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조직위원회와 K-water(한국수자원공사)가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상호협력에 나선다.

조직위는 28일 오전 조직위 서울사무소에서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기부금 기탁 개최도시 수도관로 안정성 및 수질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water는 협약에 따라 ▲임직원의 자발적 모금 등을 통한 기부금(3억) 기탁 ▲개최도시 수도관로 안정성 및 수질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수도시설 동파 방지책 무상지원 등에 나선다.

또 K-water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올림픽 홍보와 2억원 규모의 올림픽 입장권 구매 등 총 5억원 상당을 지원한다.

/김민근기자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마스코트 조형물 제막식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직무대행 김성호)은 지난 27일 올림픽공원에서 공단 및 대한체육회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의 범조성과 성공개최 기원을 위한 대회 마스코트 조형물 제막식을 열었다.

행사에서는 대회 공식 마스코트인 수호랑과 반디야에 대한 소개도 진행됐다.

공단은 "전 세계인의 축제인 이번 대회의 국내 붐업 조성과 더불어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뜻을 담았다면서 "서울 도심 속 명품공원인 올림픽공원에 대회 마스코트인 수호랑과 반디야 조형물 설치로 대 국민 홍보활동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민근기자

'옥자' 극장 상영 논란, 독립영화계까지 ...

작은 극장 위주 상영으로 독립영화들 상영 시간 줄어



'옥자'(감독 봉준호)의 극장 상영 논란이 국내 대형 극장과 넷플릭스의 갈등을 넘어 독립영화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는 29일 개봉하는 '옥자'가 국내 3대 멀티플렉스 극장(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을 제외한 작은 극장 위주로 관객을 만나기로 확정하면서 독립영화들의 상영 시간이 줄어들어 등 '그때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 대표적인 독립·예술영화 상영관으로 꼽히는 씨네큐브 평화문은 '옥자' 개봉일인 29일을 '옥자 데이'로 정하고 2개관 모두에서 하루종일 '옥자'만 상영한다. 이밖에서 6개 시간을, 아트하우스모모는 5개 시간을 '옥자'에 할애할 예정이고, KUS네마테크는 이날 4개 시간대를 '옥자'에 준다. 이 극장들은 평소 독립·예술영화 위주로 상영하는 극장들이다.

다른 극장도 시정은 마찬가지다.

/뉴시스

대한극장은 29일 '옥자'를 5개관에서 25회 상영할 예정이다.

'옥자' 상영이 확정된 전국 84개관(110개 스크린)은 대부분은 소규모 운영되면서 주로 저예산독립영화·예술영화 등을 상영하는 극장이었다는 점에서 '옥자'의 스크린 장악은 이들 영화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은 27일 '옥자' 사태에 대해 "'옥자'에 대한 관심은 한 달 이상 꾸준히 간다. 그 시간만큼 개봉을 앞둔 독립영화의 상영시간은 줄어들 것이다. 독립영화의 개봉에 옥자가 변수가 될 지 정말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고 이사장은 "문체부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진 작은 영화관 위탁사업자의 모든 관심이 오로지 수익성이냐더니, 이번이야말로 물을 만난 듯하다. 심지어 전화차 상영에 육박할 정도이다. 실버영화관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독립영화, 예술영화가 그렇게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씨네큐브의 상영시간표에 역시 놀란다"고 했다.

이란 출신 1호 K리거 칼레드 "러시아월드컵 가고파"

FC서울 입단으로 K리그 최초의 이란 국적 선수가 된 칼레드가 서울에서의 활약을 발판 삼아 2018 러시아월드컵에 나가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다.

칼레드는 28일 구단을 통해 "서울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던 이란 국가대표팀에 발탁돼 내년 열리는 러시아 월드컵에 진출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과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에서 한 조에 속한 이란은 이미 내년 본선 진출을 확정된 상황이다. 하지만 칼레드는 그동안 이란 대표팀과 연을 맺지 못했다. 모든 축구 선수들의 꿈인 월드컵 무대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소속팀인 서울에서 두각을 나타내야 한다.

칼레드는 생애 첫 해외 진출로 어느 때보다 중요한 1년의 시작을 알렸다.

칼레드는 "한국 최고의 구단인 FC서울에 오게 돼 무척 흥분되고 설렌다. 관계자 모두가 반겨줘서 더 감사한 마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민근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